한형조 무문관 탐방 ⑮

석상의 장대끝

"자신을 깨끗한 천조각 되게"

몸 버려 목숨던진 청맹과니 눈먼 대중 이끄네

竿頭進步:

石霜和尙云, 百尺竿頭如何進步. 又古德云, 百尺竿頭坐底人, 雖然得入未爲眞, 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現全身. 無門曰, 進得步, 蒜得身, 更嫌何處不稱尊. 然雖如是, 且道, 百尺竿頭如何進步. 頌曰, 瞎却頂門眼, 錯認定盤星. 棄身能捨命, 一盲引衆盲.

* 석상화상이 말했다. "백척의 장대끝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고덕(古德)이 말했다. "백척의 장대끝에 앉는 것은 진리에 들기는 했으되 진짜는 아니다. 그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시방세계에 전신을 나툰다."

* 나 혜개가 말한다. "걸음을 내딛고 몸을 뒤집으면, 이르는 곳마다 거룩하다는 칭송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디 말해보라. 백척의 장대끝에서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 어허!"

* 송하여 가로되, "정수리의 눈을 멀게 하고, 저울눈금을 잘못 읽는다. 몸을 버리고 목숨을 던져, 청맹과니 하나가 수많은 눈먼 이를 이끄네.

석상(石霜)의 이름은 경저(慶諸·807~888). 육조 아래 석두(石頭)계열인 도오원지(道吾圓智)의 법맥을 잇고 있다. 속성은 진(陳)씨. 열 셋에 홍주 서산에서 출가했고 스물 셋에 숭산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처음 율장을 공부하다가 미진함을 느껴 선에로 기울었다. 만행으로 유력하던 어느날 대위산에 이르렀다.

위산영우는 그에게 쌀을 퍼내고 씻는 일을 맡겼다. "시주들이 준 물건을 흘리고 다니지말게." 석상이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자 위산은 땅바닥에서 쌀 한톨을 찾아들고 물었다. "이건 뭔가." 석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톨이라도 소홀히 하면 쓰나. 한 말 한 가마도 이런 한 톨에서 생기는 거야." "한 말 한 가마가 쌀 한 톨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대체 이 한 톨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이 대꾸에 위산이 크게 웃고는 방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날 저녁 위산은 당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잘 살펴라, 쌀 속에 쌀 벌레가 있다."

그 후 석상은 결국 도오산의 원지를 만나 크게 깨치게 된다. 석상은 도오에게 물었다. "보이는 것이 모두 깨달음이라니(觸目菩提)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오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옆에 있는 시자를 불렀다. "사미야." "예." "주전자에 물 좀 채워라." 그러고서 생각난 듯이 석상에게 물었다. "아까, 참, 뭐라고 물었지?" 석상은 질문을 다시 들려주었다. 그러자 도오는 말없이 일어나 자리를 떴다. 석상은 이를 보고 문득 눈이 열렸다.

석상의 선은 고목선(枯木禪)이라 불리운다. 〈전등록〉 권15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석상산에 머물기 20년, 학인의 무리는 장좌하여 눕지 않았다(長坐不臥). 쭉쭉 뻗은 나무들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천하는 그들을 고목(枯木衆)이라고 불렀다. 당(唐)의 황제 희종(僖宗)이 그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자의(紫衣)를 내렸으나 요지부동,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석상은 학인들에게 늘 이렇게 일렀다. "너의 모든 갈망을 버려라. 네 입술에 거미줄이 쳐지게 하라. 네 자신을 깨끗한 비단 조각이 되게 하라. 오직 이 생각 하나가 영원토록 하라. 그대 자신을 불꺼진 재, 생명없는 주검으로 여겨라. 황량한 사당의 먼지 덮인 향로로 생각하라." 흡사 소승의 선법 혹은, 외도의 고행을 찬양하는 어투이다.

그림 · 문병성

석상은 어설픈 긍정이나 삶의 신비를 찬양하지 않는다. 죽어야 살 수 있다! 그것이 창시자가 설한 진리의 한 가운데 있다. 그런데 불교는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엄격한 극기와 절제보다 대중에의 동참과 화합을 더 강조했다. 그것은 발전적 적응일 수 있지만 동시에 퇴행적 타협일 수도 있다. 불교가 동토에 전래되면서 더 극적인 전회가 일어난다. 삶에 대한 긍정을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인들은 죽음과 소멸의 냄새를 견뎌내지 못하고 불교를 삶의 절대적 긍정에 입각한 자연주의적 태도를 발전시킨 것이다. 선이 바로 그렇다. 주자가 우려한 대로 선은 위태로운 물건이다.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손을 베게 되어 있다. 지금도 "내가 부처이다." "불교란 원래 없고, 사대육신이 곧 도(道)다"라는 역겨운 거드름을 풍기는 도적들이 신성한 도량을 더럽히고 있다. 석상은 그 기름때를 누구보다 싫어했다.

장대끝이란 바로 그 죽음의 한 가운데에 서 있음을 뜻한다. 철저한 부동의 경지. 삶의 모든 표지는 탈각하고 동시에 모든 제약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그때. 심신은 가볍고 편안하여 사대오온의 이 육신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 정신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밝고 투명해 지며, 사물은 욕망과 도구의 침착(沈着)으로부터 벗어나 '그 자체'로, 즉 공(空)으로 보이게 된다. 그때 존재의 진정한 모습, 본래면목이 드러난다. 여기까지가 장대끝의 풍경이다. 그런데 석상은, 그리고 그와 동시대의 현자 장사(長沙景岑)는 여기가 아직 끝이 아니라 한다. 장대끝에 주질러 앉지 말라고 엉덩이를 떠미는 것이다. 어쩌나, 이제 더 갈 곳은 없어 보이는데, 발 앞에는 아득한 절벽과 낭떠러지뿐인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마음을 현재 순간에 두라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5

매 순간 마음을 보고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방울과 꽃무늬를 수놓은 망토에 최신 유행 모자를 쓰고 머리는 길게 땋아늘이는 등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히피족이었지만, 권태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40대였다.

그는 미국을 방문한 아잔차 스님의 명상법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아잔차 스님도 잘 알고 있었다.

명상법회에서 분명한 길을 볼 수

수행의 장애 ⑥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그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고통스럽고, 자아가 없는 것이라면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고 아잔차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한바탕 웃고 히피들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해 그에게 물으며 "혹시 그대들의 자유란 머리모양이나 옷과 관계되는 자유가 아닌가? 그대들이 찾아야 할 것은 모든 환경과 시간대를 넘어선 자유(解脫),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잔차 스님은 행선(行禪)을 해 보라고 권하며 "그대가 앉거나 걸어갈 때, 항상 생각하고 행하는 것에 집중하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되고, 그 사유는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의 초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을 현재 순간에 두라는 것은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오직 알아차리기만 하고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장애물을 마음에서 없애려 하

번뇌 만나면 알아차린후 그냥 보내버려 극복하고 오지 않은 것 걱정말자

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좋거나, 나쁘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간에 차별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나도 없고, 자아라는 것도 없고, 모두가 있는 그대로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특별히 다른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걷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홀로 있기나 은둔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어디에 처해 있든지 평상심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알도록 해야 한다. 의혹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 된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 단지 무엇에도 끄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은 마치 길을 따라 걷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장애물과 자주 마주칠 것이다. 번뇌를 만나면 오직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냥 보내버림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이미 지나쳐온 장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에만 머물러야 한다.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신경쓰지 말라. 이것이 계속되면 마음은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루면서 수행이 저절로 되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갓 출가한 미국스님들 가운데는 그들이 받게 된 가사나 발우, 바랑 등에 집착심을 내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몸에 걸치는 가사를 좋아하는 색깔로 정성껏 물들이고, 발우도 새로 나온 가벼운 소재를 손에 넣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수행하는 것 외에 할 일이라곤 없는 생활 속에서 두 세 가지 소유물에 대해 신경을 써서 챙기고 집착심까지 일으키면서 그것들에 시간을 꽤나 쏟고 있는 것이다. 그 출가승들은 바로 수행의 첫 장애와 맞닥치게 된 것이다.

모든 장애물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친 아잔차 스님은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물을 관찰하면 모든게 무상(無常)하고 비어(空)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되면, 약간의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의심과 권태로움이 다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실재(實在)를 모르고 명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겪어야할 과정의 일부분이며 우리 자신의 정신상태, 우리의 가슴이고 마음인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⑱4

불교와 수학 ㊴

창조와 깨우침

김용운

수학사, 넓게는 과학사상 진정한 뜻에서의 창조적 역할을 한 인물은 어림으로 1백만명에 하나 정도가 나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큰 깨우침을 얻은 수행자의 수 역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창조란 그 대상이 무엇이든 마음 속의 미지(未知)의 세계를 파헤쳐 나가는 용기로 자기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실현하고 내적인 충동과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저마다 인간에게는 부처가 될 소질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 깨우침(창조)의 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우연이 없음을 시사한다. 과학의 창조도 마찬가지이며 누구나 자기나름의 잠재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동질이다.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다'는 것과 창조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어느 정도의 지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창조성의 척도로써 노벨상수상자의 업적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IQ 130의 과학자도 IQ 180정도의 과학자와 같은 정도의 업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명 과학자의 학창 시절 성적은 B+ 정도라는 것이다. 전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 위대한 문학작품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시 또는 소설에 도전할 수 있다. 수학에서도 계산 능력과 수학 실력은 거의 관계가 없음을 말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계산력은 평범한 정도였으며,

준비→잠복→개시→표출 창조에 단계 있듯 깨우침도 우연은 없어

특히 20세기 최대의 수학자로 평가받는 포엥카래는 계산능력에 관해서는 구멍가게 아주머니만도 못했음을 실토하고 있다. 특별히 가우스나 노이만처럼 계산력이 뛰어난 수학자도 있으나 이는 예외이다.

깨우침도 마찬가지로 경전 지식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실화가 있다. 여러 스님들이 수행을 하였다. 그 중 가장 못난이로 여겨지는 상좌가 있었다. 경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작도 느렸기 때문에 도저히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위인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자신도 그것을 바라지 않은 채 매일 밥짓는 일에만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수행자 가운데 정작 깨우침을 얻는 자는 성심으로 밥을 지은 그 못난 상좌뿐이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깨우침을 얻게된 계기는 잘 알려져 있다. 무덤가 옆인 줄 모르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바가지에 고인 물을 마신 원효는 다음날 아침 자신이 그렇게 달게 마신 물이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구토를 하면서도 '마음에 따라서 미취(美臭), 선악(善惡)이 정해진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원효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 모두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자신의 머리 속에 담겨져 있던 여러 생각이 하나의 계기로 인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다. 그렇기에 같은 화두를 갖고도 저마다 생각하는 경로가 다르면 깨달음의 내용도 같을 수 없다. 화두와 고민을 하는 사이에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여러 생각이 가라앉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로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원효는 고향을 떠나 당나라로 가는 길에서 수시로 '왜 당나라까지 가야 하는가?' '그곳에는 여러 고승이 있고, 많은 경전이 있기 때문이다' '고승, 경전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 등의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스스로 답했을 것이고 이러는 동안 원효의 무의식에는 여러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과학자에게 있어서의 창조성은 머리 속에 있는 여러 관념을 조합해가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수학자 J. 아다말은 수학에 있어서의 창조에 관해서 매우 흥미있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창조는 네 단계에 걸쳐 진행한다는 것이다. (1)준비단계. 논리적 방법으로 문제를 생각한다. 물론 이 단계는 의식적이다. (2)잠복상태. 준비단계의 성과가 무의식(유식론의 아뢰야식) 속에서 숙성되어 간다. 그간 생각했던 여러 생각이 얽혀간다. (3)개시단계. 무의식 속에서 숙성된 관념들 가운데 가치있는 것들이 의식 표면에 서서히 나타나고, 어느 계기에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표출된다. 불교에서는 이 단계에서 깨우침을 얻는다. 수학에서는 그 내용을 남에게 알려야 하므로 증명,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작업이 뒤따른다. 그러나 창조의 단계는 역시 (3)의 단계인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 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